

###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6차 회의 10월 27일 광주일보 14층 회의실

광주일보 제8기 독자위원회 제6차 회의가 지난 27일 광주시 동구 광주일보 1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윤하 원원장을 비롯한 임효택·조미옥·이묘숙·이철갑·이수학·강대석·김남기·안평환 위원 등 본사가 위촉한 독자위원 10명 가운데 9명이 참석했다.

# “차별화된 콘텐츠로 광주일보만의 컨셉 고민해야”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

**심층분석·기획기사 광주일보 장점  
정책·이슈 ‘중간 점검’ 역할 해야**

▲이철갑=광주일보가 독자위원회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곧바로 반영하는 자세가 좋았다. 지난해 제5차 회의에서 광주송정역 불편사항 등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는데, 곧바로 특집기사로 다루면서 편의시설과 구조적인 문제까지 다루어 주셨다. 광주일보는 타 지역 신문과 달리 심층분석·기획기사가 많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최근 화두는 광주와 전남의 상생이다. 이달 23일 1면에 ‘지자체 상생협력 읍면·성과도 속속’이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그 구체적인 성과가 빠져있어 아쉽다. 사실 전남은 동·서부로 이분화돼 있는 상태로, 경제권이 좁은 호남에서 광주까지 3분할돼 있어 문제가 있다. 앞으로 상생방향을 제시하고, 지자체들이 상생을 실천하는 지 지속적인 중간점검을 해주길 바란다.

같은 달 12일자 6면 ‘아파트수에 둘러싸인 무등산국립공원’ 기사는 독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시민 입장에서 공영면적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광주일보가 시민들의 여망에 부합하는 ‘지킴이’로 나서 대규모 아파트단지 사업승인에 관심을 기울였으면 한다.

앞서 선거구획정과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축소 등 호남의 큰 관심사였던 정치 부분이 역사교과서 문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데, 지역과 밀접한 정치 관련 후속 기사들을 기대한다.

▲김남기=‘광주일보만의 컨셉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수많은 신문과 다른 고객만족 전략과 콘텐츠 등 차별화된 전략을 꾸준히 모색해야 한다.

최근 인터넷 뉴스의 발달로 사건사고 기사의 중요성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 이때 뒤늦은 사건사고 기사보다 밝은 기사, 훈훈한 미담기사를 다룰 컨셉을 고민하는 등 다각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청년실업과 경기침체 등 심각한 현 사회 분위기에서 이들이 기사를 읽은 뒤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해달라. 우울한 기사보다는 광주일보를 보면 밝고 희망찬 기운을 얻을 수 있다는 컨셉을 잡아 나가는 것도 고려했으면 한다.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신문을 보지 않고 스마트 기기 등 PC의 사용이 늘어난다는 자료를 봤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길 바란다. 이어 지역 내 향토기업이나 단체 등과 함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만하다.

▲임효택=강원도에서 열린 제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광주는 46개 종목 1298명이 참여해 기준 목표인 14위보다 높은 11위를 기록했다. 이는 1996년 이후 18년만에 이룬 원정대회 최고의 성적이다. 여기에 광주 육상대표 김국영 선수가 전국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미담사레라고 생각한다.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들은 스포츠를 보면서 위안을 얻곤한다. 다가오는 동계체육대회를 앞두고 비인기종목 등 어려운 환경에서 훈련 중인 어린 선수들을 찾아가 조명했으면 한다. 지역의 우수 꿈나무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스타 발굴에도 노력을 기울여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의 ‘허와 실’에 대해 집중 조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밀어부치는 탓에 공공기업 등은 노조와 회사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이 놓여있다. 임금피크제가 과연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심도있는 기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묘숙=지난달 광고와 편집부분 등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빠르게 개선됐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지난달 25일 한가위 특별기획들이 굉장히 좋았는데, 연휴기간 음식과 공연전시, 민속놀이 등 보고 즐길거리와 같은 정보는 연휴 때만 되면 스트레스 받는 여성 독자들에게 반가운 기획이었다.

특히, 최근 91세의 나이로 타계한 천경자 화백의 기사를 전면에 실었는데, 지역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미술관조차 가질 수 없었던 사실 등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각계 각층의 인터뷰를 토대로 집어 싣는 게 좋았다. 이것은 광주일보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타 신문에 비해 역량이 뛰어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전오픈을 두고 설왕설래가 많았다. 일요일 휴관과 야외 영화상영 등 문제점들을 잘 지적했는데, 오는 11월 본격 개관을 앞두고 개선 여부를 지속 보도해주길 바란다. 지난

22일 ‘문화전당에서 놀자’라는 기사는 좋은 정보를 주는 아이템이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있는지를 보여주는 현장감 있는 기사가 아니어서 아쉽다.문화전당이 광주의 문화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

▲이수학=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현 정치인들이 과연 공약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또 지역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냈는지 정확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다. 호남에 불리한 지역주의 선거가 지속되지 않도록 지역의 정치인들의 활동을 일목일요하게 정리해 인물위주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광주일보가 힘써달라.

또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교과서 문제에서 의외로 광주일보의 목소리가 약한 것 같다. 여론만 전달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것도 지역언론이 할 일이다. 국정교과서의 경우 장·단점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민들이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얼마나 찬성하고 있는지, 또는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등 정책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으면 한다.

▲안평환=광주일보가 청년과 마을, 주민자치, 공동체 현안에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호남 지역민들은 정치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문화와 경제 등 또다른 영역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문화전당의 콘텐츠가 시민 참여 형태로 이뤄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예다.

또 경제영역인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어려운 상황에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는 지역민들을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최근 YMCA 해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기사도 좋았다. 학교 밖 청소년이 매년 15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 학업을 이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꿈을 응원해주는 기사를 많이 썼으면 좋겠다.

▲조미옥=지난 7일자 8면 ‘한글날이 언제예요’ 기사를 보고 20대 청년들 중 25%가 모른다는 기사를 보면서, 한글에 대한 무관심을 새삼 깨닫게 됐다. 다만, 이 사실 하나만을 보도하는 게 아닌 문제점과 대안을 심층보도해 청년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키웠으면 좋았을 것이다.

또 27일 10면 ‘교과서·스마트폰 놓고 다산·신영복을 만나다’라는 기사를 보고, 학업에 밀려 책임의 시간을 뺏긴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됐을 것이라 본다. 하지만, 이런 교사들의 마음과 달리 학부모들의 생각은 다르다. 독서에 시간을 할애할 경우 공부에 소홀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탓에 책을 보는 시간을 제공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바꿀 수 계기를 신문이 만들었으면 한다.

고려인 마을을 방문한 홍범도 장군의 후손 인터뷰 기사는 아이들이 멀게만 느꼈던 독립운동의 실상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역사를 먼 옛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이끄는 기사를 더 많이 발굴해달라.

한가지 더 강조할 것이 있다. 광주와 전남의 상생이 최근 이슈다. 최근 광주와 전남교육청이 교육혁신을 통한 인재양성을 목표로 협약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다. 협약 이후 진행사항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다. 광복 70주년 특별기획인 ‘유라시아 대장정’이 10회로 종료됐다. 당시 대장정에 나섰던 아이들은 수료식을 마치고 24권의 책도 받았으나 이후 후속기사가 나오지 않아 아쉽다.

▲강대석=지역신문의 사명은 지역의 문제를 이슈화하고 대안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3차례에 걸친 공약캠페인 ‘보현사기 고리 끊자’는 여론을 이끄는 좋은 예로,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도 해냈다.

아쉬웠던 점은 기업의 일방적인 홍보문구를 그대로 기사화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경제면 ‘스포츠지 시승기’는 소비자들과 독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보디빌더 같은 차체’, ‘파워 주행’ 등 기업에서 쓰는 단어와 문장 등 홍보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인상을 주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 자제해야 할 것 같다.

편집의 경우 제목을 보고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함축적인 제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1일자 ‘고베 풀린 한우, 눈물나는 양파’라는 기사를 보면, 양파값 하락이라는 뉴앙스를 풍긴다. 실제 내용은 한우와 양파값 둘 다 오르는 것인데 말이다. 제목에 기사의 의미를 함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안평환 광주YMCA 사무총장



**‘시민 참여’ 전당 콘텐츠 대안 제시  
학교밖 청소년 꿈 응원하는 기사를**

조미옥 빛가람중학교 수석교사



**청소년 ‘역사 무관심’ 기사 후속  
문제점·대안 심층보도 필요**

강대석 남도향토문화연구원장



**기사 전달력 높이는 제목에 관심은  
지역 문제 이슈화 대안 마련해야**

김윤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People&Life’면 독자들과 밀착  
보길도 현장감 살린 편집 좋아**

▲김윤하=우선 남북이산가족 상봉일정 발표 시기에 맞물려 보도한 19일자 7면 ‘40년 제사 지냈는데, 제삿날 오빠 만난다...’ 기사는 독자들에게 감동을 줬다. 상봉자 명단 파악도 힘든 상태에서 발매된 취재가 돋보였다. 또 15일자 6면 ‘한 땅에 두 아파트?’라는 제목의 기사도 흔치 않은 사례를 취재해 눈에 띄는 기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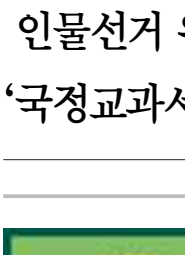
최근 22면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동정을 실어 친근한 지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지난 12일자 18면에서 완도 보길도의 기획기사는 현장감을 살린 편집이 좋았다. ‘포르르 포르르...모란 세상에 울리는 몽돌 교향곡’이라는 제목은 마치 보길도 해변의 돌소리와 작은 몽돌의 가치를 느끼게 하는 좋은 기사였다. 쌀쌀해지는 날씨에도 지역의 축제와 취재현장을 오가며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는 광주일보 기자들의 노고에 응원을 보낸다.

/정리=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임효택 동일전자정보고 교장

**임금피크제 ‘허와 실’ 조명 필요  
비인기종목 꿈나무에도 관심을**



이묘숙 송은갤러리 관장

**독자위 의견 신속한 반영 돋보여  
문화전당, 광주 브랜드 되게 힘써야**



이수학 이수학법률사무소 대표

**인물선거 위해 공약실천 점검 필요  
‘국정교과서’ 지역 여론 주도해야**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 전천후 시공성 | 절연방식 시공 | 내구성 탁월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옥상방수 | 대한건축사협회 |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광주전남대리점 | 0621 511-0444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특허방수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허 제10-1239196호  
특허 제10-0562035호

넓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외벽 패턴 | 시공후

※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아트패션시트 카탈로그) 다양하고 아름다운 패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